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윤 연 정(가톨릭대학교 석사과정)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현대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청소년 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및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1-2학년 306명(남학생 146명, 여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 측정도구는 어은주·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 그리고 한국인의 건강가족지표 개발 연구팀(이소우, 허봉렬, 옥선화, 황인실, 2003)이 개발한 한국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은주·유영주(1995)의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체계공유,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소우 등(2003)의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관계,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의사소통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채(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t검증, 피어슨 상관관계, 그리고 측정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평균적으로 볼 때 중간 수준 이상을 보여 비교적 건강한 가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역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 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을 때,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그리고 청소년 자신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 때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 때, 가족원간의 종교가 일치할 때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족원이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 때 가족끼리 해결하고자 할수록, 가족관계를 중요시 할수록, 그리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은주·유영주(1995)의 가족건강성 척도의 하위요인들인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체계공유, 문제해결능력은 이소우 등(2003)의 가족건강성 척도의 하위요인들인 가족관계, 가족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의사소통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가족의 건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가족을 위한 건강가족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가정사 양성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